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96)

새 나라 신(新), 낡은 설계도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개혁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기대가 따른다. 오래된 폐단을 걷어 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결혼에서 부동산과 민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개혁의 이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과거의 성공 방식을 되풀이하거나, 현실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자주 바꾼다면 개혁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전한(前漢) 말 왕망(王莽)이 세운 신(新) 왕조의 개혁은 이러한 위험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왕망은 외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서기 9년 전한을 대신하여 신(新)을 세웠다. 그는 토지와 노비, 시장과 화폐, 관제와 대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국호 신은 그가 신도후(新都侯)에 봉해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되지만, 《한서(漢書)》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국호 자체에 개혁의 뜻을 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새 왕조를 세운 왕망이 새로운 질서의 모델을 미래가 아니라 수백 년 전의 주나라에서 찾았다는 역설은 분명하다.

왕망이 주(周)나라의 제도와 예법을 내세운 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한 왕조를 대신한 새 정권은 자신이 왜 천하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했다. 왕망은 평제(平帝) 때 정권을 보좌하던 시기부터 여러 학자를 모아 예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신을 주공(周公)과 고대 성왕의 계승자로 내세웠다. 그의 복고는 사회경제정책인 동시에 권력 장악을 천명에 따른 질서 회복으로 설명하려는 건국 이념이었다.

그렇다고 왕망의 개혁을 현실과 동떨어진 기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전한 말에는 토지가 황실과 외척, 고위 관료와 지방 호족에게 집중되면서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유민이 되는 사람이 늘어났다. 자영농민의 감소는 국가의 재정과 군사 기반까지 약화시켰다. 토지 겸병과 노비 매매를 억제하고 시장과 화폐를 통제하려는 왕망의 판단에는 나름의 현실적 근거가 있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었다. 왕망은 천하의 토지를 왕전(王田)이라고 부르고 매매를 금지하였다. 한 집안의 남자가 여덟 명이 되지 않으면서 한 정(井)을 넘는 토지를 소유하면 남는 땅을 친

족이나 이웃에게 나누게 했다. 노비는 사속(私屬)으로 이름을 바꾸고 매매하지 못하게 했다. 가난한 백성을 보호하고 자영농민을 회복하려는 정책이었지만, 그 기준은 당시의 토지 소유 실태와 지역별 경제구조가 아니라 고대의 정전제(井田制)였다.

그러나 왕망이 살던 중국은 이미 주나라 초기의 사회가 아니었다. 춘추와 전국, 진과 전한을 거치며 토지 매매와 화폐경제가 확대되었고 지역별 생산조건도 크게 달라졌다. 토지를 다시 나누려면 소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대토지 소유자의 저항을 제압할 행정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방 호족은 관료조직과 지역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신 왕조에는 토지를 실제로 재분배하고 이를 농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장할 행정 장치가 없었다. 결국 왕망은 서기 12년 왕전의 매매를 허용하고 사속 매매에 대한 처벌도 중지하였다. 이름은 바꾸었지만 토지 소유구조는 바꾸지 못한 것이다.

왕망은 오균육관(五均六筭)을 시행하여 물가를 조절하고 백성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소금과 철, 술과 화폐 주조 등을 국가가 관리하려 했다. 여기에는 전한 무제 이래의 경제정책을 계승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시장정보와 숙련된 관리, 부정을 감시할 제도는 부족했다. 상인 출신 관리들이 지방 관리와 결탁하여 이익을 챙기는 폐단이 나타났다. 화폐의 종류와 가치마저 거듭 바뀌자 백성은 새 화폐를 믿지 못하고 옛 오수전(五銖錢)을 몰래 사용하였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거래의 혼란과 생활의 불안을 키운 것이다.

개혁의 속도와 일관성도 문제였다. 새로운 법령이 잇달아 내려졌지만 제도는 자주 바뀌었고 위반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었다. 《한서》는 제도가 안정되지 않아 관리들이 이를 이용해 농간을 부렸고 형벌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하였다. 관직과 지명도 고대식으로 거듭 바꾸어 어떤 군은 이름이 다섯 차례나 달라졌다가 다시 옛 이름으로 돌아갔다. 흉노(匈奴) 선우에게 새 인장을 강요하고 칭호를 낮춘 조치도 갈등과 군사적 부담만 키웠다. 이름을 바꾸는 것과 현실을 바꾸는 것은 달랐다.

서기 11년 황하(黃河)가 범람하여 하북과 산둥 일대에 큰 피해를 주었고, 이후 각

지의 흉작과 기근, 전쟁과 징발이 겹치면서 유민이 늘어났다. 남방의 기근 속에서는 녹림군(綠林軍)이, 청주(靑州)와 서주(徐州) 일대에서는 적미군(赤眉軍)이 성장하였다. 서기 23년 녹림 계통의 경시정권(更始政權) 군대가 관중으로 진격하고 장안 내부에서도 봉기가 일어나자 왕망은 살해되었고 신 왕조도 무너졌다.

왕망의 실패를 복고주의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자연재해와 기근, 정치적 정통성의 한계, 호족의 저항과 관료제의 부패, 잦은 정책 변경과 대외 갈등이 함께 몰락을 재촉했다. 그러나 왕망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중국 사회가 이미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다. 개혁의 목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상화된 과거에서 찾은 것이다. 고전을 현실을 비추는 자료가 아니라 현실을 대신할 설계도로 삼으면서 개혁은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려는 복고가 되고 말았다.

물론 왕망 시대의 경제적 통치와 오늘날의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 진단과 집행 능력,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정책은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이름과 지원 기준, 추진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동산정책도 세금과 대출, 공급과 규제 기준이 자주 바뀌면 국민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조정해야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평가 없이 거듭 바뀌면 청년은 일자리와 주거, 결혼에 관한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과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역사는 과거의 제도를 되살리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오늘 의 조건에 맞게 해석하라고 가르친다. 왕망이 세운 왕조의 국호는 신(新)이었지만 그 설계도는 지나치게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개혁의 성패는 구호의 새로움이나 정책 변경의 횟수가 아니라, 달라진 사회를 얼마나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제도를 얼마나 일관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도불습유(道不拾遺)

길도. 아니 볼. 주을 습. 남길 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음.

선정(善政)을 베풀어 사람마다 물자가 풍부하고 도의심이 강함을 이름.

유래: 공자가어(孔子家語), 사기(史記), 한비자(韓非子) 등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정나라 임금 간공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새로 재상에 임명된 자산에게 모든 정치를 바로 잡고 과감한 시책을 단행할 것을 당부했다. 자산은 재상으로서 오년을 계속했는데 나라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서는 떨어진 것을 줍지 않았으며 과일이 거리에 주렁주렁 있어도 따기는 사람이 없었으며 송곳이나 칼을 길에 떨어뜨려도 사흘 후에 가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흉년이 들어도 굶주리는 일이 없었다. 이는 본디 선정(善政)의 극치를 표현한 말이었는데 상앙(商鞅)의 경우와 같이 법이 너무 엄해서 공포정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대은은어조(大隱隱於朝)

숨은 은. 어조사 어. 조정 조. 큰 은자는 조정 속에 숨는다는 뜻으로 진정한 고수는 오히려 치열한 현실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의미. 여기서 숨는다는 것은 산으로 도망치는 은둔이 아니라 권력경쟁이 치열한 자리에서도 뜻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처세와 수양을 가리킨. 소은은어야(小隱隱於野), 중은은어시(中隱隱於市)와 함께 은거에도 급이 있다는 대비구조로 자주 인용됩니다.

도외시(度外視)

법도 도. 헤아릴 도. 바깥 외. 볼 시.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무시하고 배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단순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관계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외시하다”는 단어는 사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도원결의(桃園結義)

복숭아 도. 동산 원. 맺을 결. 옴을 의. 뜻의.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은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의형제를 맺다 뜻으로 사용. 결의를 맺어 형제처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약속을 뜻함.

도청도설(道聽塗說)

길도. 들을 청. 진흙길 도. 말씀 설. 길에서 얻어듣고 이를 이내 길에서 옮겨 말함. 아무 근거도 없는 허황된 소문. 논어의 양화편에 나오는 말로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다’ 즉 뜬소문을 이르는 말.

도탄지고(塗炭之苦)

진흙 도, 숯 탄, 갈지, 쓸 고. 진흙 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가리킨. 재난 등으로 몹시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음을 나타냄. 유래: 「서경」 중웨이조 편에서 하나의 덕이 부족한 통치로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도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고사성어의 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행역시(倒行逆施)

거스름 도. 행할 행. 거스름 역. 베풀 시. 거꾸로 행하고 거슬러서 시행한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유래: 춘추시대 초나라의 오자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가 초평왕에게 살해되자 오나라로 도망쳐 오왕 합려의 신하가 되어 초나라를 공격했다. 승리한 오자서는 원수를 갚고자 이미 죽은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체를 꺼내 채찍으로 300번 내리쳤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서의 친구 신포서가 편지를 보내 “과한 행동”이라고 질책하자 “오자서는 편지를 가져온 이에게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어서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지만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일모도원日暮途遠 도행역시倒行逆施)”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만시(挽詩)를 지어 조문객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만挽 안동권씨 밀양종친회 권공오익權公五翼

덕망중향장 德望重鄉長 (덕망이 높으시어 밀양의 큰 어른이셨고) 유풍재성광 備風載盛光 (선비의 도를 실어 권씨가문을 빛내셨도다) 자용금이의 慈容今已矣 (자상하시던 그 모습 이제는 볼 수 없으나) 유택수류방 遺澤永流芳 (남기신 은택은 오래도록 향기롭게 남으리라) 밀양종친회장 권유진 權裕珍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친회에서도 매년 100만원을 장학 사업에 기탁 해 오고 있으며,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장학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오는 2026년도 종친회 장학금을 수여하는 권도영(37세)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물론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에서는 근면 성실하며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선발되어 오는 종친회 회원님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보람되고 뜻깊은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되었다.

끝으로 전주,완주 종친회 권기성 회장께서는 앞으로 권도영 학생은 전주,완주 종친회의 장학생으로서 안동권씨의 자부심과 종친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자신의 큰 희망과 포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동권씨 전주,완주 종친회는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장학 사업은 물론 종친회 발전과 적극적인 참여로 회원님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전주 완주 종친회 총무이사 권영춘

권숙희 작가 전국옹변스피치 대회 대통령상 수상



권숙희 작가가 지난 8월 22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광복 제81주년 기념 ‘제38회 대통령상 전국옹변스피치 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애국충정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화합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권숙희 작가는 시인이자 수필가, 시낭송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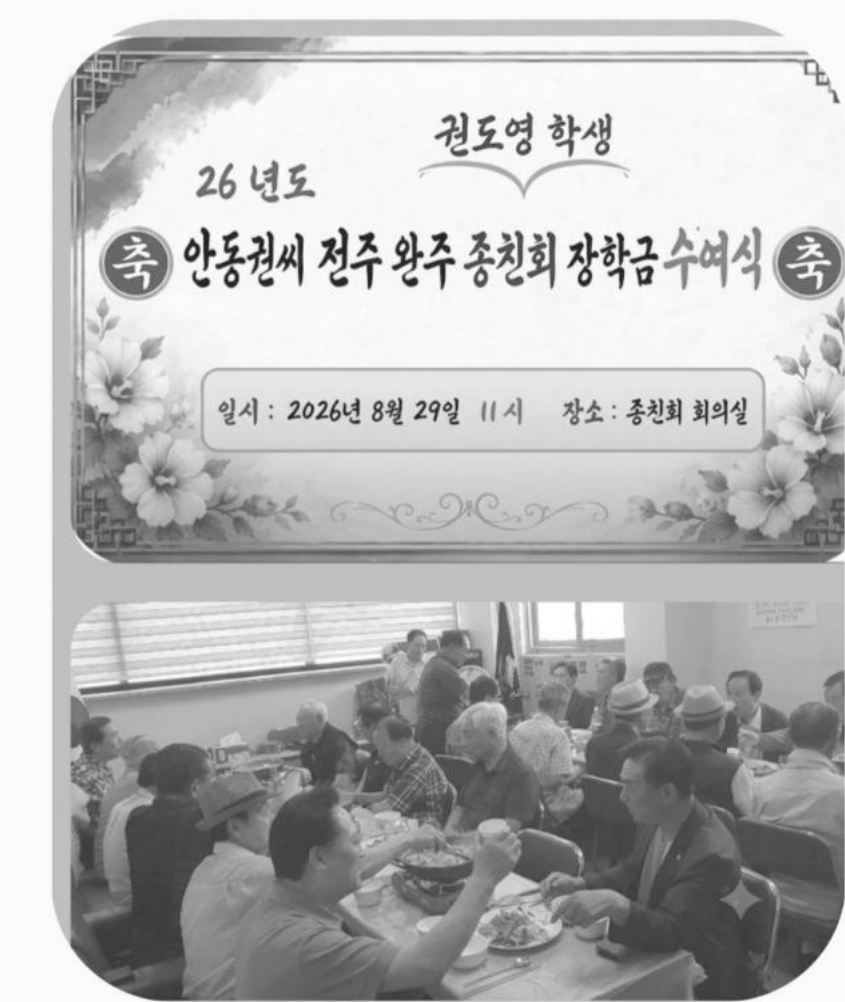
26년도 전주,완주 종친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

2026년도 전주,완주 종친회 장학생 신청을 도내 대학 및 종친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지난 7월 31일 마감한 결과 2명의 학생이 신청하였다

우리 종친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장학위원회 위원장 겸 종친회장 권기성, 부위원장 권오신 그리고 장학위원 9명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 평가한 결과,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권도영 (37세) 학생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주,완주 종친회에서 매년 수여하는 26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권도영 학생은 소감을 통해 먼저 저에게 소중한 장학금을 주신 종친회 회장님을 비롯 모든 종친 어른신들께 감사드리며 전기,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하면서 우리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변화하는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안동권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바른 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종친회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어 어른신들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전주,완주 종친회 권기성 회장은 08월 29일 거행된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전주,완주 종친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매



년 소정의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 해 오시며, 올해도 기탁 해주신 권기성 회장 100

만원을 비롯 권오신 자문위원 100만원, 그리고 50만원을 기탁한 권명수 자문위원께